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고가영\*\*

### I. 머리말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기)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의 전문가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었고, 전쟁 발생 직후에는 단기간에 종식될 전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그 누구도 종전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패권과 그것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제 연구 논문들과 연구서들도 출간되고 있다.

신범식을 비롯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전쟁을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삼중전쟁’이란 미·러 간의 국제질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쟁의 대리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국민국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둘러싼 내전을 의미한다.<sup>1)</sup> 이러한 세 가지 측면(대리전, 전면전, 내전)의 성격에 더하여 홍완석은 ‘가치 전쟁(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요소를 포함하여 4개의 층위로 전쟁을 설명하기도 한다.<sup>2)</sup>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 신범식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8-24 쪽.

가치 전쟁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 전쟁이 합리적 담론의 영역을 오래전에 벗어났으며, 정치적 노선과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내러티브 전쟁이라고 규정한 이해영의 연구서도 있다.<sup>3)</sup> 이 책에서는 노엄 촘스키와 에티옴 발리바르, 슬라보예 지젝 등 현대의 좌파 지식인들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면서 전쟁의 성격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하고 있다.<sup>4)</sup>

역사학에서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의 주류 민족은 동 슬라브인이라는 민족적 근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교라는 동일한 종교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과 분쟁은 특수한 배경을 갖고 있다.<sup>5)</sup> 전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또 다른 견해로는,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특별좌담에서 포스트콜로니얼 학자인 폴 길로이가 쓴 ‘포스트콜로니얼 멜랑콜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임지현의 분석이 있다. 그는 식민지를 상실한 구 제국들이 제국주의 시기에 대한 어떤 향수나 우울감과 유사한 감정에서 기인한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재 러시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이에 덧붙여서 임지현은 나토 동진에 대한 국

---

2) 홍완석,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함의」, 『슬라브연구』, 제38권 3호(2022).

3)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서울: 사계절, 2023).

4) 노엄 촘스키는 이 전쟁의 배경에서의 미국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며, 서방의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으로 1.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기, 2. 더 이상 크림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3. 연방제 협정을 통해 돈바스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되, 국제적 레퍼런덤(referendum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에티옴 발리바르는 촘스키가 푸틴에 대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며, 경제 제재가 러시아인의 과도한 반발을 초래해서도 안된다고 한 것은 틀렸다고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푸틴을 물러서게 하려면 강력한 타격이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발리바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민중이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정당한 전쟁’이며, 이 전쟁에 정당성을 승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슬라보예 지젝 역시 『가디언』 기고문에서 만약 좌파라면, 우크라이나 편에 서라고 촉구하면서, 더 강한 나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16~22쪽.

5) 구자경,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2023).

6) 김현섭, 신범식, 임지현, 「특별좌담.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철학과 현

가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위기의식도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제국으로 여기고 있는 러시아를 미국이나 서유럽이 주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 즉 '서발턴 제국(Subaltern empire)'으로서의 집단심성을 배경으로 주목하기도 한다. 여론조사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80%가 넘는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발턴 제국'의 주민으로서 더 강한 제국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소외감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영토를 상실한 것 등의 복잡한 심성들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이외에도 이 전쟁의 전투과정 자체<sup>8)</sup>와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포함하여, 이 전쟁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sup>9)</sup> 아울러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젤렌스키 개인과 그 세대를 분석한 저서도 발간되었다.<sup>10)</sup>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인, 전개 과정,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 중, 전쟁 난민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주민 공동체인 사단법인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의 관계를 중점

---

실』, 133호(2022), 23~24쪽.

7) 같은글, 23~24쪽.

8)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작전 분석」, 『전략연구』, 29권 2호(2022);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 『슬라브연구』, 38권 No.호(2022); 두진호,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 『국방정책연구』, 38권 4호(2023).

9) 김영식, 김병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의 무기화 전략」,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성진석,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 에너지 수급 안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정선미, 「에너지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 공공제론적 패권안정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C. Kuzemko et al. "Russia's war on Ukraine, European energy policy responses &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93(2022); 제성훈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10) Olga Onuch and Henry E. Hale, *The Zelensky Effe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이다.<sup>11)</sup>

유엔난민기구의 최고대표보인 질리언 트릭스(Gillian Triggs)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난민 대책을 수립했고, 이 대책은 플랜 A,B,C,D로 준비되었다. 담당자들의 다수는 대체로 플랜 A를 예상했다. 플랜 A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플랜 B는 수십만 명 정도로 난민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었으며, 플랜 D가 400만 명 정도의 난민 발생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수는 예상을 훨씬 능가했다.<sup>12)</sup> 이러한 난민들의 상황과 이를 수용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 전쟁의 양상을 좀 더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한 연구로는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난민들과 코비드-19 확산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sup>13)</sup>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 유입되었던 중동, 아프리카(MENA) 지역의 난민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의 차이점을 분석

- 
- 11) 오늘날 난민은 광의의 의미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협의의 의미, 즉 전쟁으로 인한 난민, 그 중에서도 고려인 난민, 특히 광주 지역으로 유입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12) 질리언 트릭스,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 포럼 기조발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023.4.28.).
  - 13) Matthew Hodes, “Thinking about young refugees’ mental health follow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1(2023), pp. 3-14; Arash Javanbakht, “Addressing war trauma in Ukrainian refugees before it is too late”,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3(2022); Wei Bai, Hong Cai, Yi Zheng and Ling Zha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dressing mental health crisis among child and adolescent refugees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Asian Journal of Psychiatry* 72(2022); Zhaohui Su, Dean McDonnell, Ali Cheshmehzangi, Junaid Ahmad, Sabina Segalo, Claudimar Pereira da Veiga, Yu-Tao Xiang, “Public health crises and Ukrainian refugees”, *Brain Behavior and Immunity*, 103(2022), pp. 243-245.

한 글들이 있다. 유럽의 언론, 특히 폴란드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백인, 유럽인, 주로 기독교인이어서 문화적 친연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메나 지역 난민들을 향해 표현되었던 적대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언론의 우호적인 태도를 분석한 글도 있다. 동일한 글에서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해 더 우호적이라고 분석한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sup>14)</sup>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현재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부분 고려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있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광주고려인마을은 매우 성공한 이주민 공동체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국내 언론과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sup>15)</sup> 그러나 아직까지

14) 이를 위해 저자는 320개의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Natalia Zawadzka-Paluckta,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17-1(2023), pp. 96-111.

15) 광주 고려인마을 관련 연구로는 김영술, 홍인화,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권 1호(2013); 김경학,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2014); 김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호(2014); 임영상, 정막래,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호(2016); 김재기, 홍인화, 「광주거주 고려인 이주노동자로서 인권실태」, 『재외한인연구』, 43호(2017);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권 2호(2017); 선봉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동포 자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권 2호(2017); 정막래, 주동완, 「광주 고려인마을의 발전을 위한 위키백과 구축 연구」, 『슬라브학보』, 32권 3호(2017); 정막래, 「광주 고려인마을 콘텐츠 연구: <나눔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2017.8); 김경학, 「국제이주 과정에서 아동의 정착 경험: 광주광역시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0권 2호(2018); 석주연, 「고려인의 코드 전환과 의사소통 전략 연구-광주 월곡 마을 거주 고려인의 경우」, 『화법연구』, 37호(2017); 석주연, 박수연, 주연, 「광주 월곡 마을 고려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는 지역으로서의 광주 고려인마을에 대한 조망은 언론 기사들을 제외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sup>16)</sup> 이 글에서는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상관관계를 증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기사 분석, 관련 기관인 법무부 및 지방자치체 발간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광주 고려인마을 거주민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산한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의 현지조사는 총 11회에 걸쳐 진행했다.<sup>17)</sup> 심층인터뷰는 고려인 지원센터 공동 대표 2인(고려인

---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105호(2018); 김경학,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이주와 정착」, 『문학들』, 55호(2019); 김나경, 선봉규,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호(2018); 윤승중 외, 『광주 고려인마을 사람들』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9); 이형하, 권충훈, 「광주고려인마을 나눔방송의 주요 핵심어 변화 탐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권 2호(2019); 박종구, 심재우, 조민주, 원재우, 이길준, 최진, 「고려인 마을의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광주, 안산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호(2020); 한정훈, 「이주민 공동체의 정착 공간과 얽히는 시선들 -광주 고려인마을을 대상으로-」, 『실천민속학연구』, 35호(2020); 한정훈, 「이주(移住)의 서사(敘事)와 고려인 공동체의 미래 -광주 고려인마을 거주 고려인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호남학』, 68호(2020);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광주 이주민의 삶과 문화』,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총서 2 (광주: 도서출판루치카, 2021); 김성원, 「가족 생태학 관점으로 바라본 광주 고려인 마을에 대한 문화 기술지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작 연구1」, 『유아교육학논집』, 25권 4호(2021); 김기성, 「경제투쟁과 아장스망-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의 횡단지역성-」, 『인문학연구』, 64호(2022); 전득안, 선봉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이주민 공동체의 변화-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 5권 1호(2022); 정종민, 김경학, 강영신, 김수정, 선봉규, 김나경, 「팬데믹 상황에서의 광주 이주배경 고려인 아동의 정동적 연결성」, 『다문화와 평화』, 16권 2호(2022); 차노희, 「팬데믹 이후 광주고려인마을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담론」, 『문화와 융합』, 44권 8호(2022); 김향희,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고려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5권 2호(2023) 등이 있다.

16) 김은서, 「무력분쟁 발생시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 42호(2022).

17) 현지조사는 1차: 2021년 6월 24일~25일, 2차: 2021년 7월 13일, 3차: 2021년 8월 20일~22일, 4차: 2021년 10월 8일~10일, 5차: 2021년 12월

1인, 선주민 1인), 우크라이나 난민 12명, 이들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이주민 고려인 1인(올드커머), 고려인 4명,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공무원 2인, 고려인마을 핵심 활동가인 선주민 4인, SBS 기자 2인과 진행하였는데, 이들 중 다수와는 반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고려인 전쟁 난민들의 상황과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이주민 공동체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발생 현황과 한국으로 유입

###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발생 현황

2022년 2월 24일 전쟁 첫날부터 수도 키이우, 서부 르비우, 동부 하르키우, 남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대도시에 러시아군에 의한 폭격이 행해졌다. 이로 인해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 명백한 침략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명명해 왔다. 러시아가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해 온,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아온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명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22년 봄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되었던 사진전 “언제나 엄마가 있기를, 언제나 내가 있기를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이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이르쿠츠크 등 대도시의 도심 거리에서 개최된 이 사진전에 게시된 사진은 2017년 돈바스 지역에 수개월 동안 체류했던 중군 기자 이리나 라쉬케비치(Ирина Лашкевич)와 다니일 보그단(Даниил Богдан)이 동부지역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찍어온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부서진 유치원과 건물의 잔해 속에 나뒀구는 인형, 공포 속에서 공허해진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클로즈업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러시아 정부가 벌인 전쟁의 당위성을 러시

---

10~11일, 6차: 2022년 7월 23일~26일, 7차: 2022년 8월 13일~16일, 8차: 2023년 10월 15일~16일, 9차: 2023년 2월 20~21일, 10차: 2023년 4월 6일~8일, 11차: 2023년 5월 18일~21일에 진행되었다.

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sup>18)</sup>

그러나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2022년 9월 21일에 러시아 정부가 30만 명을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림으로써 깨어졌다.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령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도 스스로조차 부정할 수 없는 전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원인이 독일 통일 당시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는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든,<sup>19)</sup>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한 러시아의 열망이었던,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서 갈등이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2023년 4월 23일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23,015(사망자: 8,574, 부상자 14,441)명에 달한다.<sup>20)</sup>

---

18) Юлия Сталина,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уличная выставка с историями детей из Донбасса.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работали военные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7 марта 2022) <https://www.spb.kp.ru/online/news/4681555/>; [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 (샹트페테르부르크)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детям Донбасса, открылась в Иркутске”, *Иркутск Сегодня* (2022.05.12.). <https://irk.today/2022/05/12/fotovystavka-posvyaschennaya-detyam-donbassa-otkrylas-v-irkutske/> (이르쿠츠크); Наталья Стрелцова, Василий Иванов, “Дети Донбасс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 — фото”, *Regnum* (14 марта 2022); <https://regnum.ru/news/society/3531798.html> (모스크바);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детям Донбасса”, *ЕАН* (8 Мая 2022) [https://eanews.ru/news/v-yekaterinburge-otkrylas-fotovystavka-posvyashchennaya-detyam-donbassa\\_08-05-2022](https://eanews.ru/news/v-yekaterinburge-otkrylas-fotovystavka-posvyashchennaya-detyam-donbassa_08-05-2022) (예카테린부르크); Анастасия Долгополова, Любовь Зубков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Анга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http://xn--80aagchebveoladvbvqjs.xn--plai/news/v-svezhem-nomere/4851-pust-vsegda-budet-mama> (안가르스크)

19) 푸틴 자신은 이 ‘특별군사작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를 들고 있다.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20) 이 중 도네스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사상자는 9,526(사망자 3,963, 부상자 5,563)명이다.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24 April 2023, *Office of the*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있으며, 초기부터 대규모로 발생했던 난민의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월 8일에 약 200만 명이었던 난민이, 3월 12일에 약 250만 명, 3월 15일에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폴란드에 도착한 전쟁 난민들도 약 370만 명에 이르렀다.<sup>21)</sup>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2023년 4월 20일자 자료에 의하면,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8,172,189명이며, 우크라이나 내 실향민은 5,352,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기존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비교할 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는 인근 국가들의 수용 태도는 차이를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이다.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한 바 있는 폴란드는 현재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OECD 대표부의 2022년 5월 9일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성인의 80-90%가 여성이며, 그중 절반 정도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sup>23)</sup> 주로 여성, 아이들로 구성된 난민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세-60세의 전투 가능한 남성들의 출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4)</sup>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근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전면에 드러내 놓고 거론하지는 않지만, 인종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news/2023/04/ukraine-civilian-casualty-update-24-april-2023>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21) Natalia Zawadzka-Paluckta,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Vol.17-1(2023), p. 97.

22) file:///C:/Users/SNU-User/Downloads/2023%2004%2020%20Ukraine%20situation%20flash%20update%20No%2045.pdf

23) OECD. "Rights and Supports for Ukrainian Refugees in Receiving Countries", (2022. 5.9.), pp. 7-8.

24) 18-60세 사이의 남성들 중 아이가 셋 미만인 사람이라는 조건도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난민들 중 타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는 경우 그곳을 목적으로 정하지만, 타국에 연고가 없는 경우 많은 이들이 인근 국가들의 난민 수용소에 체류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에서 발간되는 인터넷 저널들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불가리아, 독일 등지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조망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다.<sup>25)</sup>

유엔난민기구가 2022년 12월~2023년 1월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3,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향후 3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귀환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12%이며, 언젠가는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65%, 귀환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 18%, 귀환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5%로 나타나고 있다.<sup>26)</sup>

물론 내전이나 국민국가 사이의 전쟁으로도 난민이 발생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처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이 전쟁이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행되었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우크라이나의 노동 가능 연령의 남성들이 대거 폴란드, 체코,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노동이주를 떠났다.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 21일 대국민 TV 연설문에서 푸틴은 2019년 발

---

25) “Беженцы в Германии живут в школах(독일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1/bezhency-v-germanii-zhivut-v-shkolax/>(검색일: 2023년 3월 28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с трудом адаптируются в Германии(독일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ukrainskie-bezhency-s-trudom-adaptiruyutsya-v-german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Беженцы из Украины остались без жиль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영국에서 거주할 곳이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bezhency-iz-ukrainy-ostalis-bez-zhilya-v-velikobritan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в шоке от Болгарии(불가리아에서 충격받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06/ukrainskie-bezhency-v-shoke-ot-bolgar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26) “A year of War in Ukraine”, *With You* Vol. 48(2023 Spring) p. 7. [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표된 국제기구의 발표를 인용하여,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sup>27)</sup> 이처럼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가 국외로 노동이주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들 중에서도 대도시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했던 이들은 다수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의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노동이주를 감행했고, 농촌 지역에서 농사짓던 젊은이들의 다수가 한국으로 들어왔다.<sup>28)</sup>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이들의 가족들이 국경을 넘어 이들과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도 대규모 난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 2.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의 한국 유입

이처럼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일부가 전쟁 난민이 되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26일에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쟁 이후 한국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수는 약 1,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29)</sup>

한국에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1992년부터였다.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여 난민 인정 규정이 마련되었다.<sup>30)</sup>

---

27)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28)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가영, 「접경지대 우크라이나의 국내·외적인 갈등 상황이 고려인 개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역사문화연구』, 71호 (2019)를 참조할 것.

29)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보도자료』 (2023. 3. 26).

30) 조영관, 「국내 보호 체류자격 및 처우 개선방향」, 『난민의 국내정책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4~5쪽.

그러나 난민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한국에서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2001년이었으며, 26세의 이디오피아인 전도사 한 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sup>31)</sup> 이후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 2004년에는 18명을 인정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다. 점차 난민신청은 폭주했으나, 2015년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인 38%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었다.<sup>32)</sup>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난민 보호 수용력은 189개 국가 중 119위이다. 난민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예멘 난민의 경우, 난민 인정을 신청한 549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sup>33)</sup>

현행 난민법(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이다.<sup>34)</sup>

---

31) 이재호, 「좁머족을 아시나요」, 『한겨레 21 1264호』 (2020.5.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 (검색일: 2022년 5월 9일).

32)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191~192쪽.

33) 최유,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5권 1호(2022), 22쪽.

34) 난민법 (시행 2016. 12.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검색일: 2021년 6월 22일) 국제적으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만들어진 것은 1951년이었으나, 시간적 지리적 한계가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난민의 범주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1967년 UN 총회 결의 2189호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가 채택되었다. 알리야 바스타우바예바((ALIYA BASTAUBAYEVA), 『독일과 영국의 난민 보호정책 비교 연구: 난민인정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6권 7호(2016), 6~9쪽.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2023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23년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88,979명이며, 이 중 1,363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511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874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다.<sup>35)</sup>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의 난민 인정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건)

연도	구분 심사완료 <sup>34)</sup>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sup>35)</sup>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b>총 계</b>	<b>47,735</b>	<b>3,874</b>	<b>1,363</b>	<b>2,511</b>	<b>2.9%</b>	<b>8.1%</b>	<b>43,861</b>
1994~2015년	7,498	1,488	580	908	7.7%	19.8%	6,010
2016년	5,665	350	98	252	1.7%	6.2%	5,315
2017년	5,874	437	121	316	2.1%	7.4%	5,437
2018년	3,954	651	144	507	3.6%	16.5%	3,303
2019년	5,060	308	79	229	1.6%	6.1%	4,752
2020년	6,236	223	69	154	1.1%	3.6%	6,013
2021년	6,851	124	72	52	1.1%	1.8%	6,727
2022년	4,912	242	175	67	3.6%	4.9%	4,670
<b>2023년 1~3월</b>	<b>1,685</b>	<b>51</b>	<b>25</b>	<b>26</b>	<b>1.5%</b>	<b>3.0%</b>	<b>1,634</b>

<난민신청 심사결과>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42쪽

2023년 3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9,064), 정치적 의견(16,77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8,835명), 인종(4,443명), 국적(561명), 기타(3585명)이다.<sup>36)</sup>

2022년 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고려인들과 그 가족들인 우크라이나인들이다. 2014년 크림 병합 이전에는 고려인들이 이곳에 약 3만 명가량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약 1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실제로는 약 2만 명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떠나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이제 전쟁 난민이 되어 다시 한반도로 귀환하고 있다.

35)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3쪽.

36)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3쪽.

### III.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우크라이나 난민 현대

#### 1. 고려인 이주사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귀환이주를 감행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를 ‘고려사람’으로 불렀던 조선인-이주민들의 이주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월경민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1863~1937)로서 정치적·경제적인 원인으로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연해주에 정착했던 시기이다. 둘째는 ‘유형민의 삶’을 살았던 시기(1937~1956)였다. 전쟁을 앞두고 ‘일본의 스파이’라는 구실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때로부터, 유형민족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중앙아시아에서 정착했던 시기이다. 셋째는 ‘소비에트 국민의 삶’을 살았던 시기(1956~1991)이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 사회의 해빙의 분위기와 탈스탈린 운동의 기조 속에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에 의해 1956년에 “특별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상 특별 거주에 따른 제한조치 해제에 관해서”라는 법령이 공표되어, 스탈린 시기에 정해졌던 거주제한이 철폐되었다. 이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게 된 고려인들은 신이주를 감행하여 거주지를 확대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때 고려인들은 세 방향으로 이주했다. 첫 번째 방향은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소련의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이들은 대학교육을 마친 이후 소련의 주류사회로 진입했다. 두 번째 방향은 러시아 남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으로 계절 노동인 고본지<sup>37)</sup>를 떠난 것이다. 세 번째 방향은 비록

37) 고려인의 고본질의 기원은 연해주 이주 초기 시기 북한 거주민들이 봄철에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계절노동으로 보기도 한다. 임영상,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북한, 그리고 다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고려인 김 레오니드의 살아온 이야기-」, 『역사문화연구』, 35호(2010).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주로 ‘고본지’라고 부르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고본질’이라고 부른다. 농업 분야에서의 토지 임차-경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고본질은 10-20명 정도로 구성되며, 대표(브리가질)가 먼저 경작할 토지를 물색하여 계약을 한다. 고본질은 봄철에 집을 떠나 가을에 수확한 이후 되돌아 오는 고된 노동이지만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었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고본질에 나섰다. 권희영,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 39;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p. 50; Герон Н. Ли, *Гобонди(고본지)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2000).

소수이긴 하지만 강제이주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인 연해주로 귀환한 것이다.

네 번째 시기는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게 된 시기(1992-현재)이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신생독립국가가 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강화정책과, 체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재이주했으며, 이에 더하여 역사적 고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서 고려인을 밀어내는 유출 요인은 신생 독립국가의 정부들이 국민국가 정체성을 확립(Nation-state building)하기 위해 자국어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어가 모국어였던 고려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 고려인들의 유입을 끌어당긴 원인은 재외동포법의 제정이었다. IMF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6월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안)' 입안을 시도했다. 이 법안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조 제2호)로 제한했다. 이 법안은 1998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2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2월 3일 시행되었다.<sup>38)</sup>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 시기 한반도에서 이주했던 이들이 재외동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제외된 동포들은 주로 조선족과 고려인이었다. 이에 일제의 강제징용·수탈을 피해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 2세로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 국적자 3인(조연섭·문현순·전미라)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23일 재외동포법

---

38) 김봉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69> (검색일: 2023년 3월 6일).

제2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2004년 3월 5일에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법률 제7173호)되었다.<sup>39)</sup>

이러한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고려인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후 2019년 고려인 4세대들도 동포로 인정됨으로써 가족단위의 이주도 가능해지자, 고려인들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2023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외국국적동포가 812,693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2,335,5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sup>40)</sup> 고려인은 약 105,321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2023.3.31. 현재,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카자흐스탄
812,693	630,461	46,488	41,390	35,493	18,016	20,345
	호 주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 타
	5,083	3,816	3,472	426	379	7,324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별 한국 체류 현황>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44쪽

이처럼 국내로 유입된 고려인들은 안산시 맷골, 인천광역시 함박마을, 광주광역시 월곡동, 안성시 내리, 경주시 성건동 등 여러 지역에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만한 장소는 광주광역시 월곡동의 고려인 집거지이다. 이곳은 안산시 맷골마을,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과 함께 국내 3대 고려인 집거지 중 하나이다. 현재 광산구 월곡 1동과 2동을 중심으로 약 7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sup>42)</sup> 사단법인을 설립한 광

39) 같은 글.

40) 국적별로는 중국이 630,461명으로 전체의 77.6%, 미국 46,488명(5.7%), 러시아 41,390명(5.1%)이다.

41) 이 숫자는 구소련지역 외국국적 동포 수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2021년 4월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통계자료에서 76,880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주의 고려인 집거지인 고려인마을은 응집력과 체계적인 마을 운영 면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고려인 집거지가 공단 근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광주 고려인마을의 경우 이천영, 신조야 두 사람의 설립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고려인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월곡동도 다른 도시의 고려인 집거지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공단(하남공단과 평동공단)이 있으며, 아울러 광주시 외곽이어서 농촌으로의 접근성도 편리해, 공장과 농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선주민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88년부터 전남여상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1998년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때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아주는 일을 했다. 그는 광주전남 교사들로 구성된 교직자 선교회 회원들과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광산구 하남공단에 창고를 임대해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개원했다. 이후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인권상담소,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공단교회, 한반도사랑교회, 외국인 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 등을 세웠다. 외국인 노숙자 쉼터에는 주로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이들을 돕는 일을 20여년 동안 지속했다.<sup>43)</sup>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활동을 하던 중인 2002년에 이천영 교장은 현재 고려인 지원센터의 공동 대표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신조야와 만나게 되었다. 신조야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딸을 만나기 위해 2001년에 입국한 후 전남 함평의 콘크리트 회사에서 일했다. 함평에서 임금

---

42) 김명식,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 고려인 오자 역사는 깊어지고 미래는 밝아졌다」, 『남도일보』 (2022.11.02.).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89>(검색일: 2023년 1월 5일).

43) 이천영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고려인마을 교회, 방송국, 고려인 문화관); 고가영, 「왜 고려인마을에는 코로나 19가 없나: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의 네 번의 운명적 만남」, 『한겨레 21』 1379호 (2021.09.03.).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78.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78.html) (검색일: 2022년 2월 10일).

체불을 겪게 되었고, 광주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부터 전해 듣고 2002년에 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운영하던 이천영 대표를 찾았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고려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동행하게 됐다. 신조야 대표가 월곡동에 도착하던 2002년에는 카자흐스탄 남성과 결혼한 고려인 여성 한 명밖에 없었다.<sup>44)</sup>

이천영과 신조야 대표의 만남은 고려인 이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냈다. 이들은 2004년에 고려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2005년부터 상담소를 개소했고, 2009년 1월부터는 고려인 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월곡동 고려인 집거지에는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많은 기구들이 조직되었다. 이 기구들은 생활지원, 교육시설, 고려인 미디어,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갖추어진 이러한 인프라들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됨으로써 오히려 고려인마을에는 몇몇 기구들이 신설되었다.

### 1) 고려인 지원센터와 우크라이나 난민 정착지원

먼저 생활 지원 부분의 핵심 기구인 고려인 지원센터는 가방 하나만 들고 월곡동 지원센터로 찾아온 고려인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주었다. 이 일은 지원센터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려인 이주민들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들이 첫 월급을 받게 되면 다음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떠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이주민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고려인 노동자들 역시 빈번한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변호사, 노무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고려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sup>45)</sup>

---

44)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10월 9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5) 이천영,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이러한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고려인마을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의 난민 수용소에서 도움을 요청한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 항공권을 구입하여 보냄으로써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지원센터의 항공권 지원으로 국내로 입국한 고려인은 2022년 12월에 875명이었다.<sup>46)</sup> 광주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항공권을 보내게 된 계기는 월곡동에 위치한 식당인 고려인 가족 카페의 주인이 기부한 천만 원이 마중물이 되었다. 이후 광산구청, 기업체, 개인들이 기부금을 고려인마을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을 도왔으며, 입국 이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당 보증금 2백만 원, 두 달 치 방세 80만 원, 생계비 백만 원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매주 생필품들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한다. 이 모든 비용은 모금을 통한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sup>47)</sup>

또한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에 매우 시급한 문제인 의료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주지역 의료진들과의 협업 속에서 지원센터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도 환자들이 생기고, 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고려인 지원센터는 월곡동 거주민에 한해 국적(민족), 병명, 액수 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다. 병원비는 월곡동에서 자리를 잡은 고려인 상인들만이 아니라 선주민 개인이나 단체들도 참여한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sup>48)</sup> 이처럼 고려인마을은 광주시민과 고려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코비드 19가 성행하던 시기 고려인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 백신 접종 및 위생관리를 위해 고려인마을은 광산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sup>49)</sup>

46)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https://www.koreancoop.com/sub.php?PID=0506>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47) 이천영, 신조야, 박 빅토리아 인터뷰, 2022년 7월 23, 24, 25, 26일, 2022년 8월 14일,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8) 이천영 인터뷰, 2021년 8월 22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9) 김양숙, 박진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사무실).

이러한 기존의 의료 인프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온 난민들의 의료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난민들의 경우 시급한 수술을 포함한 긴급한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고려인마을은 난민들에게 160건이 넘는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해 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도착과 동시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안 예프로시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안씨는 우크라이나에서 22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지하생활, 열악한 환경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갔으며, 폴란드 난민수용소에서의 생활 등으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시급한 수술을 필요로 했다. 또한 협동농장 일을 처음으로 착수했던 김씨의 경우도 입국 당시 심각한 치질 상태여서 도착 즉시 수술을 받았다. 폭격으로 원래 약했던 청력이 더 손상된 안 엘레나의 딸의 경우는 고성능의 보청기를 고려인마을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sup>50)</sup>

## 2) 고려인 미디어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난민 청년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고려인 미디어이다. 이는 인터넷 신문 '나눔 방송'과 라디오 방송국 'GBS FM고려방송'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2016년 인터넷 마을 방송으로 개국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2021년 7월에 정식 주파수를 가진 지상파 방송으로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1일 고려방송(FM93.5Mhz) 개국식을 갖고 러시아어 70%, 한국어 30%로 24시간 방송되는 정규방송이 되었다. 현재 가청지역은 광주시와 전남 일부이며, 방송은 유튜브로도 제공된다. 이 방송을 듣고 광주에 지인이 없지만, 중앙아시아로부터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sup>51)</sup>

이러한 미디어 인프라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GBS FM고려방송'은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동포 자녀를 위한 방송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부터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3명의 방송 진행자를 배출했다. 이 중 최 빅토리아(20

---

50) 박 빅토리아, 안 엘레나, 이천영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2023년 4월 7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51) 이 믿음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2023년 2월 20일, 4월 8일 (고려인마을 방송국, GBS FM고려방송국).

세)와 이 다리야(22세)는 고려방송 프로그램 중 '타임 오브 드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0월 6일 오후 4시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진행자인 최 빅토리아는 “지난 4월 전쟁의 참화를 피해 폴란드로 피신한 후 난민센터에 머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으나 고려인마을이 지원하는 항공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했으며, 광주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 정착 후 고려방송이 전하는 방송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됐기에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며 국내외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sup>52)</sup> 이처럼 고려인마을의 생활지원 인프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려인 난민들이 광주로 유입된 이후 이들의 초기 정착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3) 교육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아동, 청소년들

고려인들의 한국 사회의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국내 유일의 학력 인가 중고등학교인 '새날학교'가 있다. 새날학교는 2007년에 이주 노동자의 자녀 2명을 돌보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동사무소내 광산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교실 2칸에서 시작한 새날 학교는 폐교된 삼도남초등학교 장소로 2009년에 이전하여 개교식을 가졌다.<sup>53)</sup>

2011년 6월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로 인가되었으며, 고려인마을 자녀는 물론 국제결혼을 통해 입양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sup>54)</sup> 2021년 1월 졸업생 23명 중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13명 모두가 연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국민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동

---

52) 박 빅토리아, 「“아픔을 함께 이겨요” 우크라 탈출 고려인동포 자녀 고려방송 진행자로 나서」, 『한국협동조합방송』 (2022년 10월 11일). [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 (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53) 폐교된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은 새날학교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중채, 「박중석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 새날학교에 장학금 전달」, 『남도일보』 (2023.01.0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92>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54) '새날학교' <http://www.saenalschool.com/school/06.html> (검색일: 2023년 1월 5일).

신대학교 등에 입학했으며,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를 통해 광주 인근 산업단지 기업에 입사했다.<sup>55)</sup> 2023년 4월 현재 재학생은 72명이고, 10명의 교사와 9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 30명이 대기 중이며, 2023년 2학기에는 1개 반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sup>56)</sup>

구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합계
남	7	8		7	4	1	3	1	1	32
여	12	5	2	6	6	2	6	1		40
합계	19	13	2	13	10	3	9	2	1	72

<2022학년도 나라별 현황> 출처: 새날학교 홈페이지  
<http://www.saenalschool.com/index.html>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새날학교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은 20명이다.<sup>57)</sup> 새날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한국인 예술가 7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식당 건물 벽화 그리기 등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난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벽화의 주제는 인종의 다양성이며, 예술가들이 기본 도안을 그려 넣은 후,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색을 채워 벽화를 완성했다.<sup>58)</sup>

이외에 고려인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로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2012년 10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으며, 2013년 7월에 개원한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광산구 외국인 지원과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55) 김혜경, 「광주새날학교, 제10회 졸업식 비대면 온라인 개최」, 『한국타임즈』 (2021.01.08.). <http://www.hktimes.kr/read.php3?aid=1610059202136634006>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박호재 「다문화 대안 학교 ‘광주 새날학교’ 풍성한 졸업식」, 『The Fact』(2021.01.08.).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192.htm>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56) 이천영 인터뷰, 2023년 4월 7일 (새날학교 교장실).  
 57) 이천영 인터뷰, 2023년 4월 7일 (새날학교 교장실).  
 58) 김용희, 「벽화로 꽃핀 '우크라 고려인 어린이들의 꿈」, 『한겨레』 (2022.05.3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5040.html> (검색일: 2023년 1월 5일).

한글, 영어, 수학 과목 등의 학습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2017년에는 고려인 청소년문화센터를, 2022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버들시내> 센터도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올드커머로 전쟁 이전 한국에 들어왔던 우크라이나 출신 대학생이 이제 막 전장을 빠져나온 난민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새날학교부터 광산구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주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들시내> 청년 센터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육 기관들은 고려인 주민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난민 지원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난민 전문가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 문화 시설과 난민의 고려인 정체성 확립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 그 이전에 구소련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고려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업, 거주지 확보 등의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난민을 비롯한 고려인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고려인마을 극단, 학술기관(고려인마을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이주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박물관인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을 건립했다. 김병학 박물관 관장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서 한글학교 교사, 카자흐스탄 한글문화센터 소장, 고려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체류한 24년 동안 그는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귀중한 유물 12,000점을 수집했다. 그의 개인 소장품을 바탕으로 2021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을 개관했다.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이 소장한 자료 중 23권의 자료집이 국가기록물 제1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sup>59)</sup>

---

59) 김병학 인터뷰, 2021년 7월 13일, 8월 21일, 2022년 8월 15일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

특히 2021년 8월 14일~31일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박물관에서 개최했으며, 2022년 8월 15일에 월곡동 어린이 공원에서 홍범도 장군 제막식이 있던 날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단막극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때 공연을 담당한 배우들은 호남대학교 연극 전공 학생들이었다. 이처럼 고려인 박물관은 고려인마을 거주민인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주민들이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 5) 난민 유입으로 신설된 기구들

#### 협동 농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광주로 유입된 난민 고려인들 중 노년층들은 공장, 식당 등에서 힘든 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려인마을은 2023년 2월 광산구 새마을회 소유의 농지를 임대해 고려인 협동농장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후원금과 마을 주민들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농사자금을 기반으로 비닐하우스 등 농사에 필요한 기본 자재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35개 식당들과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판매망을 구축해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고려인마을 협동농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난민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up>60)</sup>

그런데 협동농장 건립 당시 최초로 농업을 담당했던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김씨와 토지를 대여해 주는 광산구 새마을회 지도부 사이에 농법의 차이로 인한 이견도 발생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고분지를 다니면서 농사일을 시작한 이래로 일생을 농업에 종사해 온 김씨는 자신만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를 원했다. 그러나 광활한 대지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온 이들의 농법을 인정하지 않는 토지 주인인 새마을회 지도부 사이의 이견으로 결국 김씨는 협동농장 업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sup>61)</sup> 협동농장 내 농업은 다른

---

60) 윤종채,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농장, 특화작물 ‘씨뿌리기’ 한창」, 『남도일보』 (2023.04.18.)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458>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에게로 넘어갔으며, 2023년 4월 현재 김씨는 새날학교의 학교 교정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동농장을 통한 농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생계를 위한 터전 마련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양계장

고려인마을의 양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해온 박 에릭이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으로 입국하여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에 거주하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구 새마을회 소유 임야의 일부를 대여하여 양계장을 시작했다. 낡은 가정용 냉장고를 부화기로 활용하여 2023년 4월에는 하루에 250-300마리의 닭들을 부화시키고 있다. 자연 방목으로 관리되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계란과, 닭들은 고려인마을 식당들에 납품되기도 하고, 별도의 판매 루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 에릭은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62)</sup> 이처럼 고려인마을 인프라를 난민들이 활용함과 동시에 난민들의 유입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분야들이 개척되면서 고려인마을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다.

## 2. 우크라이나 난민 개인의 삶

### 1) 가족 전부 입국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입국한 난민들 중 일가족 전부가 광주로 들어온 사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 엘레나의 가족이다. 1979년생인 엘레나는 광주의 공장에서 6년 동안 힘겹게 번 돈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미콜라이우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청각장애인인 딸에게 송금해왔다. 엘레나는 지난 2022년 1월 가족들을 만나러 우크라이나로 입국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녀가 송금한 돈으로 마련한 미콜라이우의 예쁜 집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적십자의 도움으로 버스를 타고 몰도바-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를 거쳐 폴란

61) 김씨 인터뷰 (1955),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신안 톨립 축제 현장).

62) 박 에릭 인터뷰 (1954),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드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난민 수용소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았으며,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안 엘레나는 폴란드 난민 수용소 취재를 위해 나와 있었던 한국 기자들에게 한식을 요청하여 가족들이 함께 먹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엘레나의 가족은 그곳에서 고려인 마을에서 보내준 항공편으로 함께 입국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딸의 경우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장애인 무용수로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딸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안 엘레나는 고통스러워했다.

이처럼 전쟁을 계기로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 이들은 전후에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엘레나의 부모님은 둘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엘레나는 2007년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딸도 러시아 국적자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구소련 지역민들에게 국적 부여를 간소화했는데, 이때 엘레나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우크라이나를 벗어날 때, 러시아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니 러시아로 가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통보에 우크라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음을 항변하여 어렵사리 부모와 딸과 함께 폴란드로 갈 수 있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sup>63)</sup> 이처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 우크라이나 국적,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러 종류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더해 무국적자들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고려인들의 복잡한 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노년층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노년들 중, 박 에릭과 니 엘자 부부가 있다. 박 에릭은 195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주의 레닌 콜호즈에서 태어났으며, 니 엘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의 아푸르간에서 태어났다. 레닌 콜호즈에서 지인을 통해 만나서 결혼한 이들은 1983년에 결혼했으며, 딸 둘과 아들 1명이 있다. 이들은 1983년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로 고본지를 다녔고, 1995년에 미콜라이우로 완전히 이주했다.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집과 자동차 3대를 소유했고, 이 차량들을 위한 커다란 주차장 겸 창고를 건축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생 동안 농사

---

63) 안 엘레나 인터뷰 (1979),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를 지으며 이북한 이 모든 것들은 폭격으로 인해 무너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과 차고가 집중적으로 폭격을 당한 이유가 차고가 커다란 규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무기를 쌓아두었을 것이라고 러시아군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들은 2022년 6월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우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장녀인 사미라의 집으로 갔다. 사미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항공사에 근무했고, 그곳에서 만난 독일 사람과 결혼하여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 에릭은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던 그는 광주에서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2023년 4월 현재 미콜라이우에서 지역 방위군으로 자원하여 근무하고 있다. 전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젊은 날에 고된 노동으로 마련했던 모든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과 더불어, 종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연금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생을 근면하게 살아왔으나, 말년에 불쌍한 전쟁 난민으로 전락했다며 니 엘자는 한탄했다. 만약 젊은 시절이라면, 난민이 되었더라도 그 폐허 위에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노년이 되어 전쟁 난민이 되어 고된 노동을 하기 어렵고, 새롭게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도 어렵다며 안타까워 했다.<sup>64)</sup>

이들 부부와 함께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씨(본인 스스로 익명을 요청)도 1955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주에서 태어났다. 1971년부터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고본지를 다녔으며, 198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정착했다. 일생을 농부로서 살아온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의 농사를 지었다. 그의 사위는 이 전쟁에서 전사했으며, 그는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체류했다. 폭격 당시 지하실에 피해 있던 그와 그의 가족은 몰도바 - 루마니아 - 헝가리를 거쳐 폴란드에 도착했다. 폴란드에서 그는 단신으로 그의 누이가 거주하는 이탈리아로 갔다. 그의 누이는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하여, 이탈리아 농촌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폴란드로 돌아왔고,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을 받고 2022년

64) 니 엘자 인터뷰 (1957),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8월 1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는 헝가리, 폴란드 등 그동안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65)</sup>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 또한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치전쟁의 단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 공항에서 광주로 직행한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막 시작한 협동 농장에서 농업을 시작했으나, 땅을 제공한 새마을회와 농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3년 4월 현재는 새날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무연고로 입국한 그에게 고려인 지원센터는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그의 아들은 미콜라이우에서 지역방위군으로 자원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는 몰다비아인인 아내와 두 딸은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받는 지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고 있다.<sup>66)</sup>

### 3) 여성과 아이들

우크라이나 난민의 90%는 여성과 아이들이다.<sup>67)</sup> 김 옥사나는 세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에서 출생한 김 옥사나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남편과는 전쟁 전에 사별했다. 옥사나는 징집대상이라 출국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딸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놓고, 나머지 딸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옥사나는 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으로 오겠다는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미콜라이우에서 함께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려인 지원센터로부터 세 딸과 자신의 항공료를 지원받아 광주로 들어왔다.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세 딸과 함께 3주 정도를 지내다가,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2022년 7월 25일에 월곡동에 위치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나왔다. 이들 역시 초기 정착금과 두 달 동안의 월세를 지원받았으며, 당장 생활에 필요한 이불, 쌀, 그릇 등을 지원받았다. 2007년생인 딸 박 알렉산드

---

65) 헝가리 길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였는데, 핸드폰 통역 어플을 사용하여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씨,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66) 김씨 인터뷰,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67) "A year of War in Ukraine", p. 7.

리아와 2010년생인 딸 릴리야는 새날학교로 전학을 했다. 7월에 입국한 두 아이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한국, 특히 광주의 더위에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짓던 옥사나는 식당 주방 보조원으로 취업을 했으나, 알러지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다가, 이후 공장에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가족 중 여성과 아이들만 국경을 넘어왔기에, 종전이 되면 이들은 가족들이 있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sup>68)</sup>

#### 4) 무국적자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무국적자로 신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2018년 당시에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장이자,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인 강정식 교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무국적자들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고려인들 중 우크라이나 입국 이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적도 상실되고, 우크라이나 국적도 취득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된 이들이 많았으며, 고려인 협회가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강정식 회장은 2018년 당시 '합법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무국적자 문제를 90%가량 해결했다고 말한 바 있다.<sup>69)</sup>

무국적자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2018년 당시 오데사에 거주한 마리나 신이었다. 마리나는 소련시기 패스포드를 갱신하여 우즈베키스탄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소련시기 발급된 패스포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1997년까지는 소련 시기 발급된 패스포드로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갑자기 소련 패스포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마리나의 남편은 무국적자가 되어 거리에도 마음 편히 나갈 수 없었으며, 생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sup>70)</sup> 이처

68) 김 옥사나 (1973), 박 율리야 (1993), 박 알렉산드라 (2007), 박 릴리야 (2010) 인터뷰, 2023년 7월 2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69) 강정식 인터뷰 (1948), 2018년 9월 25일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실).

럼 고려인 협회와 한국 대사관이 다수의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 무국적자들도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왔다.

무국적 고려인 난민들 중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18개월(22년 7월 기준)된 딸과 함께 입국한 김 발레리(1988년)도 있다. 김 발레리는 8세에 부모님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으나,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왔다.<sup>71)</sup> 무국적자이기에 많은 제약 속에 살아왔으나,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자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출국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동원령에 해당되지 않아 출국할 수 있었다. 무국적자들은 일생 거주 지역을 벗어날 꿈도 꾸지 못하다가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입국한 김 발레리가 당면한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이었다. 무국적자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이 발행한 동포 방문비자(C-3-8)로 국내 입국하였다. 이로 인해 취업 제한과 90일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22년 8월 한국 내 무국적자인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은 약 6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sup>72)</sup>

### 5) 유사 이주 노동자

리 드미트리리는 2년 전 키예프로 일하러 갔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체르카스의 집으로 돌아왔다. 반년 동안 일거리도 없어서 수입이 없이 지냈다. 그는 아이들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둔 채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에서 들어온 것과는 달리 이들은 직접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서, 자비로 국내로 입국했다. 한국으로 오는데 아이들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아이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라고 답했다.<sup>73)</sup> 이들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입이 끊어지자 한국행을 감행했다.

---

70) 신 마리나 인터뷰 (1966), 2018년 9월 27일 (오메사, 한인교회).

71) 김 발레리 인터뷰 (1988),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72) 이천영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73) 리 드미트리리 인터뷰 (1984), 2022년 8월 1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이처럼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다양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상황을 통해 전쟁의 단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3. 난민과 동포 사이의 광주 정착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에서 민간 모금을 통해 항공권을 지원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고, 초기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인 고려인들은 분명 전쟁 난민이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위가 전사하기도 하고, 또는 일생을 일군 집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비극적 현실에 처해 있는 전쟁 난민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1/4 고려인임을 증명하여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전쟁 난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입국부터 정착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광주 고려인마을 지도부 역시 이들을 전쟁 난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멘 난민 사건의 사례로 인한 것이었다.<sup>74)</sup> '2023 난민 포럼' 개최사에서 인권위원장인 송두환도 "예멘 난민신청자 관련 기사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는 경쟁적이고 자극적이었으며, 국회에서는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sup>75)</sup> 당시 연합뉴스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폭발적으로 쏟아냈다.<sup>76)</sup> 이는 한국 사회 내에 난민 문제가 조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무슬림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에 당황한 정부는 2021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할

---

74) 2018년 4월 ~ 5월에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입국자 561명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대규모 제주 예멘 난민신청으로 한국사회는 처음으로 난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안된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714,875명이 찬성할 정도로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았다. 최유,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19~20쪽.

75)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76) 고은지,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2019.2.4.) <https://nancen.org/1859> (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때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 378명을 ‘특별 기여자’라는 호칭으로 특별 전세기를 통해 2021년 8월 26일에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이들 역시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이었으나,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명명함으로써, 예멘 난민들을 향했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향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는 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아닌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으로 부른다.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동포, 특히 고려인들을 흥범도 장군의 후예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돕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동포 돕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주도성은 현저하게 낮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는 르비우에 중앙 기구를 설치하고<sup>77)</sup> 유대기구(Jewish Agency)를 통해 폭격 대상 지역으로 450대의 특별 버스를 배치했으며, 알리야 센터(Aliyah center)<sup>78)</sup>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6개국에 개설했으며,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유대인 난민들에게 호텔과 다른 숙소, 음식, 상담을 제공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대인들을 위해 ‘알리야 익스프레스 프로그램(Aliyah Express program)’을 시작하여 즉시 항공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도착 이후 숙소와 정착을 도왔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59,870명에 이른다.<sup>79)</sup>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유입될 유대인의

---

77) “우크라이나”, *One New Man Family*, <http://www.onenewman.net/107>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78) 알리야는 히브리어로 ‘(시온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로서 고향땅에 돌아간다는 ‘귀환’을 의미한다. 즉 해외 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복귀와 정착을 일컫는다. 홍인화, 임채완, 『이스라엘 귀환동포의 알리야와 지원정책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1호(2017), 168쪽.

79) “UKRAINE CRISIS”, <https://www.jewishagency.org/2022-ir-ukraine> (검색일: 2023년 1월 5일)/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를 약 30,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도착 이후 이들에게는 임시 거주지가 제공되며, 이스라엘 사회 통합에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언어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아이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및 복지 활동을 제공한다.<sup>80)</sup>

물론 국가 자체가 이민자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된 이들 고려인들을 보편 인권의 문제인 난민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불쌍한 동포 돕기라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향후 난민 수용 등 한국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사회가 난민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는데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IV. 맺음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의 내전이나, 국민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도 난민들은 발생하지만, 대리전의 성격을 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난민들을 발생시켰다.

기존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같은 무슬림, 유색인종의 난민과 달리 80-90%가 여성과 아이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백인들인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인근 국가들에서 환대를 받았다. 물론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난민의 규모 역시 예상을 벗어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

<http://www.onenewman.net/107> (검색일: 2023년 1월 5일).

80) “우크라이나”, *One New Man Family*.

인근 국가들에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즉 가치적인 측면도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그동안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태도를 견지해 온 일본 정부조차도 특별 항공편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으로 데려왔고, 이에 대한 여론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이다.<sup>81)</sup>

이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중 유대인과 고려인들은 제외동포로서, 귀환이주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단지 이스라엘의 경우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행위 주체로 나선 반면,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이다. 고려인마을이 난민 고려인들에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계기는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월곡동에서 이주노동자로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자신들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단지 미성년 자녀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데려왔지만, 점차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인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제공으로 입국했다.

광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은 다수가 미콜라이우(니콜라예프) 출신이다. 이는 전쟁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광주로 들어와 노동을 하던 고려인들이 미콜라이우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후 요청하면 무료로 항공권을 구매해 준다는 정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이전에도 생활지원, 법률, 의료, 교육 분야와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전쟁 직후 광주 고려인마을은 난민들의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모금을 통해 약 900명 가량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했으며, 이

---

81) 김소연, “난민에 인색한 일본, 우크라 피난민 이례적 지원 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7769.html>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들의 정착과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광주 고려인마을의 올드커머인 고려인들과 선주민인 활동가들이 다방면에서 돕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후원 물품과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확장되었으며, 오히려 선주민들의 과거 고려인 공동체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들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에 대한 환대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 표출된 부정적 여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려인마을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을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으로 명명하며, 이들을 난민이라기보다는 재난을 당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향후 한국 사회는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벗어나, 재난을 당한 '난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kknow@snu.ac.kr

#### 주제어(Key Words)

우크라이나 전쟁(The Ukrainian War), 우크라이나 난민(Ukrainian refugees),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Ukrainian Koryoin refugees), 이주민 공동체(Migrant community), 광주 고려인마을(Koryoin Village in Gwangju)

투고일: 2023.04.20. 심사일: 2023.05.20. 게재확정일: 2023.05.26.

<국문초록>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고 가 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내전, 국가간의 전쟁, 그리고 대리전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전쟁 난민을 발생시켰다.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메나 지역 난민들과는 달리 인근 국가들에서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들 난민들 중에는 고려인들도 있다. 전쟁 발생 이후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약 1200명 정도가 들어왔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이다. 계기는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자녀들을 입국시킨 것이었다. 초기에는 단지 미성년 자녀들을 항공권을 제공하여 데려왔지만, 점차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인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제공으로 입국했다. 이들 난민들의 개인적 경험들은 이 전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은 기존에 갖추어져 있던 광주 고려인마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착할 수 있었고, 이들의 유입으로 광주 고려인마을은 더 확장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에 대한 환대는 전쟁 난민에 대한 환대라기보다 재난을 당한 동포에 대한 도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을 난민이라는 호칭보다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로 부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선별적 수용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사회는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더 나아가, 단지 ‘난민들’이어도 그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Influx of the Ukrainian War Refugees and the Expansion of the 'Koryoin Village' in Gwangju**

Ko, Ka Young

The war that began wit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urned into a protracted one. The war in Ukraine, with its complex characteristics of civil war, interstate war, and proxy war, has generated the largest number of war refugees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Ukrainian refugees, mainly women and children, were welcomed in neighboring countries, unlike those from the Mena region. Among these refugees are Koreans. About 1,200 Koryoins from Ukraine who became refugees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entered Korea.

It is the Koryoin Village community in Gwangju that actively promotes the entrance of Koryoin refugees from Ukraine. It started with the bringing of the children of Goryeoins living in Wolgok-dong, where the Goryeoins from Ukraine built a village. In the beginning, only teenagers or younger children were brought in by providing airline tickets, but gradually entire families, women and children, stateless Koreans, and the elderly entered the country with air tickets provided by Koryoin Village people in Gwangju. The personal experiences of these refugees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war.

These Ukrainian refugees were able to settle down owing t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f the Goryeoin Village in Gwangju, and the influx of these people allowed the Goryeoin Village in Gwangju to expand further. However, the hospitality for the Ukrainian refugees is limited to help for the compatriots who suffered disasters rather than

that for war refugees. Therefore, in Korean society, Koryoins who have been refugees from the war in Ukraine are referred to as “Koreans who escaped from Ukraine” rather than refugees. Through this, we can acknowledge the reality of selective acceptance of refugee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will have to go beyond the selective hospitality that requires special modifiers such as 'special contributors' or 'disaster-stricken compatriots' and move toward a society that can positively accept refugees even if they are just 'refugees'.

## 참 고 문 헌

### 1. 사료

- 강정식 인터뷰, 2018년 9월 25일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실).
- 김 발레리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김양숙, 박진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사무실).
- 김병학 인터뷰, 2021년 7월 13일, 8월 21일, 2022년 8월 15일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
- 김 옥사나, 박 올리야, 박 알렉산드라, 박 릴리야 인터뷰, 2023년 7월 2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김씨 인터뷰,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신안뜰립축제 현장).
- 니 엘자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 리 드미트리 인터뷰, 2022년 8월 1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박 빅토리아 인터뷰, 2023년 8월 1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박 에릭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 신 마리나 인터뷰, 2018년 9월 27일 (오데사, 한인교회).
-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10월 9일, 2022년 7월 23, 24, 25, 26일, 2022년 8월 14일,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안 엘레나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이민음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2023년 2월 20일, 4월 8일 (고려인마을 방송국, GBS FM고려방송국).
- 이천영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2022년 8월 16일, 2023년 2월 20일, 4월 7일,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고려인마을 교회, 방송국, 새날학교).
- 김봉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69> (검색일: 2023년 3월 6일).
-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 고가영, 「왜 고려인마을에는 코로나 19가 없나: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의 네 번의 운명적 만남」, 『한겨레 21』 1379호(2022.05.1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검색일: 2022년 2월 10일).
- 고은지,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2019.2.4.), <https://nancen.org/1859> (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 김명식,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 고려인 오자 역사는 깊어지고 미래는 밝아졌다」, 『남도일보』 (2022.11.02.),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89> (검색일: 2023년 1월 5일).
- 김소연, “난민에 인색한 일본, 우크라 피난민 이례적 지원 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7769.html>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 김용희, 「벽화로 꽃핀 '우크라 고려인 어린이들의 꿈」, 『한겨레』 (2022.05.3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5040.html> (검색일: 2023년 1월 5일).
- 김혜경, 「광주새날학교, 제10회 졸업식 비대면 온라인 개최」, 『한국타임즈』 (2021.01.08.), <http://www.hktimes.kr/read.php3?aid=1610059202136634006>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 난민법 (시행 2016. 12.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검색일: 2021년 6월 22일).
- 박 빅토리아, 「“아픔을 함께 이겨요” 우크라 탈출 고려인동포 자녀 고려방송 진행자로 나서」, 『한국협동조합방송』 (2022년 10월 11일), [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 (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박호재 「다문화 대안학교 ‘광주 새날학교’ 풍성한 졸업식」, 『The Fact』 (2021.01.08.),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192.htm>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https://www.koreancoop.com/sub.php?PID=0506>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우크라이나”, One New Man Family, <http://www.onenewman.net/107>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윤종채,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농장, 특화작물 ‘씨뿌리기’ 한창」, 『남도일



- 보』 (2023.04.18.),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458>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 윤중채, 「박중석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 새남학교에 장학금 전달」, 『남도일보』 (2023.01.0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92>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 이재호, 「줍머죽을 아시나요」, 『한겨레 21 1264호』 (2020.5.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 (검색일: 2022년 5월 9일).
- “A year of War in Ukraine”, *With You*, 48(2023 Spring), [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24 April 2023,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news/2023/04/ukraine-civilian-casualty-update-24-april-2023>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 “UKRAINE CRISIS”, <https://www.jewishagency.org/2022-ir-ukraine> (검색일: 2023년 1월 5일).
- “Беженцы в Германии живут в школах(독일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1/bezhency-v-germanii-zhivut-v-shkolax/>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Беженцы из Украины остались без жиль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영국에서 거주할 곳이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bezhency-iz-ukrainy-ostalis-bez-zhilya-v-velikobritanii/>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 Сталина, Юлия,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уличная выставка с историями детей из Донбасса.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работали в оенные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7 марта 2022), <https://www.spb.kp.ru/online/news/4681555/>; [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 (검색일: 2023년 1월 5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в шоке от Болгарии(불가리아에서 충격받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06/ukrainskie-bezhency-v-shoke-ot-bolgarii/>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с трудом адаптируются в Германии(독일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ukrainskie-bezhency-s-trudom-adaptiruyutsya-v-german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2. 단행본

- 강주진, 『한국과 소련』 (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79).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광주 이주민의 삶과 문화』 .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총서 2 (광주: 도서출판루치카, 2021).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2023).  
권희영,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신범식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서울: 사계절, 2023).  
윤승중 외, 『광주 고려인마을 사람들』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9).  
제성훈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Onuch Olga and Henry E. Hale, *The Zelensky Effe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Ли, Герон Н., *Гобонди(고본지)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 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2000).  
Петров. А.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2000).  
Стариков Н., *Беляев Д. Россия, Крым, Итория* (СПб., 2018).

### 3. 논문

- 고가영, 「접경지대 우크라이나의 국내·외적인 갈등 상황이 고려인 개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역사문화연구』, 71호(2019).
- 권충훈, "광주고려인마을 나눔방송의 주요 핵심어 변화 탐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권 2호(2019).
- 김경학,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2014).
- 김기성, 「경계투쟁과 아장스망-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의 횡단지역성-」, 『인문학연구』, 64호(2022).
- 김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호(2014).
- 김영술, 홍인화,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권 1호(2013).
- 김은서, 「무력분쟁 발생시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 42호(2022).
- 김현섭, 신범식, 임지현, 「특별좌담.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철학과 현실』, 133호(2022).
-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26호(2003).
- 신범식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 알리야 바스타우바예바(ALIYA BASTAUBAYEVA), 「독일과 영국의 난민보호정책 비교 연구: 난민인정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6권 7호(2016).
-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 임영상, 정막래,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호(2016).
- 전득안, 선봉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이주민 공동체의 변화-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 5권 1호(2022).

- 정막래, 「광주 고려인마을 콘텐츠 연구: <나눔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8).
- 정선미, 「에너지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 공공제론적 패권안정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 조영관, 「국내 보호 체류자격 및 처우 개선방향」, 『난민의 국내정책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 질리언 트릭스, 「난민의 국내정책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 포럼 기조발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023.4.28.).
- 홍완석,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함의」, 『슬라브연구』, 38권 3호(2022).
- Javanbakht, Arash, “Addressing war trauma in Ukrainian refugees before it is too late”,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3(2022).
- Kuzemko, C. et al. “Russia’s war on Ukraine, European energy policy responses &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93(2022).
- Zawadzka-Paluckta, Natalia,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17-1(2023).